

—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USA

2018

Vol. 6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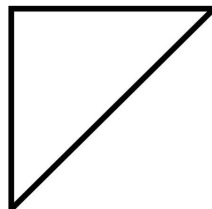
2018년 6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p>▶ 미국 지상파 5개 네트워크의 2018-2019 파일럿 시즌 분석</p> <p>⇒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TV 시리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의 TV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 2018-19 TV 시즌의 파일럿 픽업(이하 파일럿 제작주문) 결과와 트렌드를 방송사별로 분석하고 주요 작품들의 장르, 스토리, 제작방식 등을 통해 미국 TV 시리즈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자 함</p>	TV 방송

2018. 03. 23.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



심층이슈

『미국 지상파 5개 네트워크의 2018-2019 파일럿 시즌 분석』

◎ 작성취지

-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TV 시리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의 TV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 2018-19 TV 시즌의 파일럿 픽업(이하 파일럿 제작주문) 결과와 트렌드를 방송사별로 분석하고 주요 작품들의 장르, 스토리, 제작방식 등을 통해 미국 TV 시리즈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자 함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각 방송사별 픽업 현황 및 파일럿 간략 소개
- 파일럿 주문작을 통해 살펴보는 2018 파일럿 시즌 트렌드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 2018-19 파일럿 픽업 완료

- 2018-19 TV시즌의 파일럿 픽업이 지난 2월 완료됨. 올해 총 픽업 편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음
- 파일럿 제작방식이란, 여러 편의 드라마의 초반 몇 회를 실제로 제작해 반응을 보고 시즌으로 또는 시리즈로 제작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공중파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해온 방식
- 매년 초반에 경쟁적인 파일럿 피칭이 이뤄지고 3,4월경이면 캐스팅은 물론 제작까지 거의 완성됨

◎ 파일럿 픽업 현황¹⁾

- 2018년 파일럿 픽업 총 편수는 76편으로, 2017년에 픽업된 74편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음
- 장르로 구분하면 그중 45편이 드라마, 31편이 코미디로, 전년도의 장르별 편수와 비교해 구성에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편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총 편수가 98편으로 가장 많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20편 가량 줄어들음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ABC, CBS와 The CW의 경우는 편수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Fox, NBC는 픽업 편수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임

네트워크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ABC	23	24	24	25	27	24	24
CBS	18	17	17	18	19	23	16
Fox	11	13	19	15	16	16	16
The CW	9	6	6	4	6	8	8
NBC	15	14	22	23	27	27	23
총 편수	76	74	88	85	95	98	87

[표1] 매년 각 네트워크의 파일럿 픽업 편수 [참고: <할리우드 리포터>²⁾

2. 각 방송사 별 픽업 현황 및 파일럿 간략 소개

◎ ABC : 총 23편

- ABC는 올해 간판급 TV시리즈들이 종방을 앞두고 있어 잠재적으로 다시 간판급 시리즈가 될 만한 파일럿을 발탁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 대표적으로는 코미디 시리즈인 <모던 패밀리>와 <골드버그 패밀리>의 파이널 시즌이 예정되었으며, 판타지드라마인 <윈스 어폰 어 타임> 역시 종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 라인업에 특히 더 고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음
- 총 편수는 작년보다 한편 줄어든 23편으로,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가 13편,

1)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tv-pilot-season-2018-by-numbers-1083029>

2)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tv-pilot-season-2018-by-numbers-1083029>

코미디가 10편(싱글카메라 촬영방식 7편, 멀티카메라 촬영방식 3편)임

- 23편 중 ‘스트레이트 투 시리즈 오더’ (Straight-to-series order: 파일럿리뷰 없이 시리즈 전체가 발탁된 경우를 일컬음, 이하 “시즌 오더”로 표현)는 두 편으로, 이전에 흥행한 수사물 <Castle>과 유사한 <The Rookie>와 가족코미디 <Take Two>가 있음
- 다만, <Take Two>의 경우, 애초에 알렉 볼드윈(<30 Rock>)이 출연하기로 했으나, 출연하는 대신 프로듀서로 남음
- 전반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 여성을 중심으로 둔 이야기가 많음

○ ABC 파일럿 픽업소개

① 드라마

- <A Million Little Things>: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갑작스러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껍질을 깨고 나와 삶을 사는 이야기. <Grimm>의 주연이었던 데이비드 지언톨리의 차기작
- <False Profits>: 아리조나 교외의 빈털터리 여자친구들이 모여 최고의 화장품 마케터가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Scandal>의 벨라미 영의 차기작
- <The Fix>: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검사였던 마야 트라비스는 경력 최대의 재판에서 크게 진 뒤 조용히 삶을 돌아보기 위해 오레곤의 작은 마을로 이사오고 그로부터 8년 뒤, 문제의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살인자가 그녀를 찾아오고 마야는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게 됨. 브레킨 마이어, 메린 던지 출연
- <For Love>: “사랑의 위하여” 라는 제목처럼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 5년 전 살해당한 약혼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호프 카스티유는 죽은 약혼자와 현재의 사랑이 만드는 삼각관계에서 고민함



[그림1] <Get Christie Love>의 오리지널 이미지 [출처: imdb.com]

- <Get Christie Love>: 1970년대 ABC 채널에서 방영된 TV시리즈의 리부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CIA 요원인 크리스티 러브를 중심에 둔 수사물로 2018년 리메이크에서는 음악과 액션이 큰 비중을 차지함. 카일 번버리, 줄리아 켈리, 카마일 파티 출연
- <Grand Hotel>: 스페인 TV시리즈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마이애미 해변가의 호텔을 배경으로 호텔의 주인 가족과 호텔의 직원들이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에 대한 이야기. <위기의 주부들> 이후 히스패닉 시청자들을 겨냥한 TV 시리즈에 집중하는 에바 롱고리아 제작, 멕시코 출신의 배우 데미언 비셔, <Devious Madis>의 로즐린 산체스 출연



[그림2] <The Rookie>에 출연하는 네이든 필리온 [출처: ABC]

- <The Rookie>: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고 안온한 삶을 살아온 존 놀란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해 20살은 어릴 것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LAPD 신입의 삶을 시작함.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 <Castle>의 네이든 필리온의 차기작으로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 됨
- <Safe Harbor>: 다양한 상황에 놓이는 경찰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조명하는 이야기. 린 콜린스, 아시프 반드비, 바네스 바스케즈 출연
- <Salvage>: 전직 경찰인 토비 케벨은 고향인 플로리다에 돌아와 조용한 혼자만의 삶을 살고자 함. 하지만 그가 사는 동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잃어버린 스페인 보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어 그가 사건을 맡게 되고 지역유지와 외부의 수사기관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의 충돌이 일어남. 토비 케벨, 채리티 웨이크 필드, 짐 벨루시 출연
- <Stacies>: 뉴욕 경찰국의 열심인 형사인 엘리자 콜테즈가 오레곤 출신의 샘 킹과 파트너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 앤디 칼, 애니 일론제 출연
- <Take Two>: 재촬영원에서 출소한 TV시리즈 스타 엘라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가 진행됨.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엘라는 앞으로 TV시리즈에 출연할 수 있을거란 희망으로 탐정인 에디의 뒤를 따라다니며 탐정일을 배움. 레이첼 빌슨, 에디 시브라이언 출연.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 됨
- <Untitled Holmes Sisters>: 아프리카계 미국인 다섯 자매의 이야기. 모두 뉴욕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각자의 삶 속의 도전을 이겨내려고 노력함
- <Whiskey Cavalier>: 1시간 길이의 드라마로 외강내유의 FBI 요원 월 체이스와 FBI 요원 프란체스카가 팀을 이루는 스파이물. 스콧 폴리, 로렌 코한 출연

② 코미디

- <The Greatest American Hero>: 1980년대 TV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시리즈. 노래방과 혼술을 좋아하는 30대 여성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다 설명할 수 없는 이벤트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로 거듭남. 네이티브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조명됨. 하나 시몬, 조지 웬트, 지아 산두 출연
- <Man of the House>: 최근 이혼을 겪은 자매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 각자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는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

-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게 어떤 일인지 알아가는 내용의 코미디. 엘리슨 해니건 출연
- <Most Likely To>: 고교 시절 리즈 쿠니는 여왕이었고, 마키 매퀸은 존재감이 없었으나 20년이 지나 둘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싱글맘으로 다시 만남. 이벤 니콜 브라운 출연
- <Single Parents>: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편부모들이 모여 부모노릇을 품앗이 하는 이야기. 사랑도 찾고 삶도 찾는 방법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뿐이라는 걸 알아감. 태런 킬람, <Gossip Girl>의 레이튼 미스터, 브래드 개럿 출연
- <Steps>: 스웨덴 드라마 <Bonus Family>의 리메이크로, 이혼한 커플 두 쌍이 3개의 집에서 3명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야기
- <Three Rivers>: 뉴욕의 호텔리어 레베카는 텍사스로 돌아와 가족의 목장을 휴양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지만, 아버지가 뜻밖의 비밀을 밝힌 후 그녀의 계획은 흔들림. 애넬레이 아쉬폴드, 존 라로켓 출연
- <Untitled Bobby Bowman>: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와 보낸 실제 유년시절이 바탕이 된 자전적인 이야기
- <Untitled Justin Noble>: 동명의 블로그와 이를 바탕으로 출판된 책 <How May We Hate You>가 원작인 직장 앙상블 코미디. 최고급 리조트의 고객센터 팀원 2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이야기. <2 Broke Girls>의 캐트 데닝스 출연
- <Untitled Kenya Barris>: 잊혀진 TV스타가 여자친구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리고 전처와의 딸과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코미디. 알렉 볼드윈이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총괄 제작으로만 남게 되면서 이 파일럿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됨.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확률도 큼)
- <Untitled Time Doyle Project>: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 집안이 중심이 되는 코미디. 1970년대가 배경이며, 노동계급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8명의 아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변화가 많았던 시기를 관통하며 이야기를 풀어냄. 마이클 쿠들리츠, 메리 맥코맥 등 출연

○ CBS : 총 18편

- 총 편수는 작년보다 한편 늘어난 18편
-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 10편, 코미디 8편으로 비중은 비슷함. 촬영방식은

3)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kenya-barris-alec-baldwin-team-family-comedy-at-abc-1066388>

모두 멀티카메라 촬영방식을 채택함

- CBS의 간판 시트콤이자 시트콤 1위를 오래 동안 누려온 <빅뱅이론>의 파이널 시즌이 예고됨. 변동될 여지도 있지만, 파이널 시즌이라고 알려짐
- CBS 역시 여성 크리에이터가 참여하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female-fronted contents)에 비중을 키움
- 클래식 TV시리즈 또는 영화의 리부트(Reboot: 흥행했던 과거의 TV시리즈를 시간차를 고려해 현재에 되살리는 시도)가 눈에 뜨임 이를 테면 <Cagney and Lacey>, <L.A. Confidential>, 그리고 <Magnum P.I.> 등이 있음



[그림3] <Murphy Brown> 스틸 이미지 [출처: ABC]

- CBS가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한 시리즈는 <Murphy Brown>의 리부트로 1988년 프리미어한 뒤 30주년이 되는 2018년에 기존 이야기의 30년 뒤를 이어가기로 결정함
- CBS의 2018-19 파일럿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NBC에서 27년 동안 <Law and Order> 시리즈와 스핀오프, <Chicago> 시리즈 등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온 딕 울프(Dick Wolf)가 NBC를 떠나 CBS에서 수사물인 <FBI>(가제)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

○ CBS 파일럿 픽업소개

① 드라마

4)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murphy-brown-returning-cbs-13-episodes-1078071>

- <Cagney and Lacey>: 아이코닉한 클래식 시리즈의 리부트. 여성 형사 2명이 로스앤젤레스를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이야기. 캐스팅 미정
- <Chief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 개 지역의 경장인 세 여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적이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
- <The Code>: 해군 출신의 범조인들이 사회에 나서 법정에서 겪게되는 이야기. 각각 검사, 변호사, 수사관이 되어 활약함. 필리파 수 출연
- <FBI>: 딕 울프의 CBS 진출작으로 시즌 오더된 시리즈. 뉴욕 FBI 요원의 수사과정을 그려냄. 지코 자키 출연
- <God Frieded Me>: 신앙에 대한 믿음, 존재, 과학 등을 유머러스한 톤으로 그려낸 드라마. 페이스북에서 “신”과 친구가 되면서 무신론자인 주인공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함. 브랜든 마이클 홀, 조 모튼 출연
- <L.A. Confidential>: 제임스 엘로이의 소설 원작이 분위기, 음악, 스타일면에서 2018년 식으로 재해석됨.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과 여자 기자, 유망한 여배우등이 1950년대를 배경으로 가학적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침. 브라이언 J 스미스, 윌튼 고킨스 출연
- <Magnum P.I.>: 하와이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고전 TV시리즈의 리부트. 네이비셀 출신의 탐정인 토머스 매그넘이 주인공인 이야기. 제이 헤르난데즈 출연
- <Main Justice>: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미국인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홀더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보킴 우드바인, 티모시 허튼 출연
- <Murder>: 범죄수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도.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경찰과 범죄자, 증인과 피해자, 가족과 친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진행됨. 마이클 치클리스, 테요나 파리스 출연
- <Red Line>: 시카고의 백인 경관이 과잉진압으로 흑인 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세가족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짐. 마이클 패트릭 손튼 출연

② 코미디

- <Fam>: 부유한 약혼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주인공의 희망은 대책 없는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려는 역시 대책없는 이복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요원해짐. 오데사 애들런 출연

- <Welcome to the Neighborhood>: 미 중부에 살던 가족을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로 데려오면서 주인공과 가족이 겪게되는 극단의 이웃사촌들. 세드린 더 엔터테이너, 손 매키니 출연
- <History of Them>: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자란 두 친구 루나와 아담이 소셜미디어를 가이드 삼아 점차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이야기. 아나 빌라페인, 리사 비달, 펠릭스 솔리스 등 출연
- <I Mom So Hard>: 동명의 인기 웹시리즈를 바탕으로 개발된 TV시리즈. 아내, 엄마로 사는 두 여자의 우정이야기. 크리스틴 헨슬리, 젠 스메들리 출연
- <Murphy Brown>: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된 시리즈. 13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클래식 TV코미디의 리부트. 2018년에 탄생 30주년 맞이해 3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케이블 티비, 소셜 미디어, 페이크 뉴스의 세상으로 주인공과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들임. 캔디스 버젠, 페이스 포드 출연
- <Pandas in New York>: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개업의로 활동중인 인도 출신의 의사가족이 아들을 위해 창창한 미래를 설계해두지만, 아들은 그만의 계획이 있음
- <25>: 20대의 카일은 오스틴에 가서 오랜 친구에게 서로가 최선의 선택임을 설득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 그러나 카일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함. 캐스팅 미정
- <Untitled Austen Earl and Time McAuliffe>: 지루한 삶에 싫증난 30대 커플의 집에 젊은 팝스타가 함께 살게 되면서 커플은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감. 데이먼 웨이언스 주니어, 펠릭스 밀라드 출연

○ FOX : 총 11편

- 파일럿 픽업 편수는 총 11편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2편 줄었음. 장르로 보면 드라마가 5편, 코미디가 6편이며, CBS와 대조적으로 싱글카메라 촬영방식이 코미디 중 4편에 달함
- Fox의 경우 디즈니와의 인수합병이 마무리 되지 않아 앞으로의 향방이 뚜렷하지는 않음

○ FOX 파일럿 픽업 소개

① 드라마

- <Mixtape>: 음악을 통해 캐릭터를 정의하는 독특한 장르의 로맨틱 뮤지컬 드라마. 각각 떨어져 살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랑과 이별의 단계를 경험함. 칼리 헤르난데즈, 매들린 스토크 출연
- <Untitled David Elliot/Danny Strong>: 부당한 사형판결을 뒤집는 법정 드라마. 정의에 목마른 젊은 여성 법조인이 이끄는 팀은 유죄로 판결받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재수사함. <Grimm>의 러셀 혼즈비 출연
- <Untitled Ilene Chaiken and Melissa Scrivner Love>: 국내 테러 위협을 조사하던 FBI 요원 헤이즐 오티스는 장관의 내연녀로 알려지며 개인적인 삶과 FBI에서의 커리어를 위협받게 됨. 케이티 홈즈, 로즈 롤린스, 마크 모지스 출연
- <Untitled Robert Levine>: 데니스 르헤인의 소설 <Gone, Baby, Gone>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사실 탐정 패트릭 켄지와 안젤라 제라노는 서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급격히 가까워짐. 조세프 모르간 출연
- <The Passage>: 저스틴 크로닌의 베스트셀러 3부작이 바탕이 된 이야기.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루는 정부 기밀 의료시설의 실험 대상인 10살 소녀 에이미 벨라폰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됨. 지난 시즌에 이미 픽업된 파일럿을 다시 파일럿 시즌에 내놓은 사례로 일부 설정이 바뀜. 마크 폴 고젤러, 빈센트 피아자 등 출연

② 코미디

- <Bless This Mess>: 뉴욕의 신혼부부가 경쟁적이고 각박한 삶을 포기하고 네브라스카로 이주해 단순한 삶을 살기로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음. 레이크 벨 출연
- <Cool Kids>: 퇴직을 앞둔 세 친구가 한 여자에게 빠져드는 코미디. 70대가 주인공인 하이틴물 같은 느낌. 비키 로렌스, 데이빗 앨런 그리어, 레슬리 조던 출연
- <Untitled Erin Foster>: 30대 싱글녀 앤디는 정착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플레이

보이 아버지가 그녀의 절친과 사랑에 빠진 뒤 생각이 달라짐. 에린 포스터의 자전적 이야기가 바탕이 됨. 에린 포스터, 돈 존슨 출연

- <Dan the Weatherman>: 로컬 방송국의 기상캐스터에서 해고당한 뒤 댄은 잘생긴 백인남자로 세상살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만, 결국 히스패닉 채널의 기상캐스터로 재취업함. 캐스팅 미정



[그림4] <Nvsu> 스틸 이미지 [출처 : jra.org]

- <Our People>: 이스라엘 TV시리즈 <Nvsu>의 리메이크. 신명나는 아프리카계 가족 출신의 남성과 미국 중서부 백인 집안의 여성이 만나 “평범한 삶”을 꾸리는 이야기. 리아 톰슨 출연
- <Rel>: 전담 미용사와 아내의 부정을 발견한 린은 이혼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함. 사랑도 찾고, 존경도 되찾고, 새로운 전담 미용사도 찾아야 하는 것이 과제임. 릴 웰 하워리, 조던 존슨 출연. 크리에이터의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이야기

○ The CW : 총 9편

- 파일럿 픽업 편수는 총 9편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편이 늘었음. 이는 최근

7년간 가장 많은 편수로 장르는 모두 드라마. The CW는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 타깃 시청자층의 연령이 낮음

-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여성 중심 콘텐츠에 대해 The CW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방영된 시리즈인 <Charmed>의 페미니스트 버전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함⁵⁾

○ The CW 파일럿 픽업 소개



[그림5] <Charmed> 오리지널 스틸 이미지 [출처: Warner Bros.]

- <Charmed>: 캠퍼스 타운에서 자란 세 자매는 성인이 되어 그들이 마녀라는 걸 알게 됨. 악귀를 물리치고, 남성중심의 지배적인 구조에 반항하는 동시에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해감. 멜로니 디아즈, 세라 제프리 출연
- <Dead Inside>: 의심스러운 폭발사고로 오빠를 잃은 존재감 없던 여형사가 오빠의 유령과 함께 다니며 능력있는 형사로 바뀌게 되는 수사물. 오빠의 유령은 이승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건을 위해 계속 남아있게 되는 설정의 드라마. 프레디 스트로마, 조이 킹 출연
-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치명적으로 위험한 외계인을 이송 중이던 우주선이 로스앤젤레스 벨리 지역에 추락하게 되고,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두 명의 여성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주민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외계인

5)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charmed-star-rips-cws-feminist-reboot-guess-we-forgot-do-first-go-around-1078762>

- 들을 찾아 처단하는 특수요원이 됨. 조쉬 헬먼, 게이지 고라이틀리 출연
- <In the Dark>: 마약거래 중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눈먼 여자라 경찰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반려견 프레첼과 함께 살인자를 찾아나서게 됨. 페리 맷필드 출연
 - <Playing Dead>: 15년전 떠나간 아내가 홀아비인 장례준비사와 아들에게 찾아와 자신의 가짜죽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함. 타일러 리터, 클라라 라고 출연
 - <Skinny Dip>: 결혼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낭만적인 크루즈여행이 실은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된 여자가 전직 경찰과 파트너가 되어 복수를 꾀하는 이야기. 칼 히아센이 쓴 소설이 원작. 매트 바, 벤 알드리지 출연
 - <Untitled April Blair>: 실존 풋볼 선수인 스펜서 페이싱어의 자전적 이야기로, 전도유망한 고교 풋볼선수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남부 로스앤젤레스의 캠프를 떠나 부유한 베벌리힐스 고교로 전학하게 됨. 타이에 디스, 사만다 로건 출연
 - <Untitled Roswell Project>: 불법체류자의 딸로 살아온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고향 뉴멕시코의 로스웰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 좋아했던 남자 동창과 마주침. 그런데 그 동창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멜린다 메츠의 원작소설 <Rosewell High>가 바탕이 된 드라마. <Grey's Anatomy>의 제닌 메이슨 출연
 - <Wayward Sisters>: <Supernatural>의 한 에피소드가 시리즈로 발전. 초현실 괴물 때문에 모두 고아가 된 한 무리의 여학생들과 형사 조디 밀스가 힘을 합쳐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 킴 로즈, 브라이언 버크매스터, 캐스린 뉴튼 출연

○ NBC : 총 15편

- 파일럿 픽업 편수는 총 15편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편 많아짐
- 장르는 드라마가 8편, 코미디가 7편이며, 싱글카메라 촬영방식은 3편, 멀티카메라 촬영방식은 4편임

- 딕 울프가 CBS로 떠났지만, NBC는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의 크리에이터인 줄리언 펠로우즈에게 새 시리즈 <더 길디드 에이지>(The Gilded Age)의 10개 에피소드를 시즌 오더 함.⁶⁾ 1880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며 2019년 방영을 앞두고 있어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은 알려진 바 없음

○ NBC 파일럿 픽업 소개

① 드라마

- <The Enemy Within>: 첩보세계가 배경인, 캐릭터가 이끌어가는 수사물 장르의 스릴러. CIA요원인 에리카 울프와 현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이며, 미국이 가장 혐오하는 인물이 현대 미국이 마주한 거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는 줄거리의 드라마. <Dexter>의 제니퍼 카펜터, 로미스 체스트넛, 라자 제프리 출연



[그림6] 줄리언 펠로우즈 [출처: LA타임즈]

- <The Gilded Age>: PBS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영국 TV시리즈 <Downton Abbey>의 줄리언 펠로우즈가 만드는 시대물. 18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순진한 처녀 마리안의 눈으로 변해가는 시대상을 조명함. 마리안은 이제 막 철도산업으로 거부가 된 조지 러셀과

⁶⁾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downton-abbey-creator-julian-fellowes-gilded-age-drama-a-go-at-nbc-1080655>

- 내연관계로 발전하는데 조지의 아들 부부와 갈등관계를 이룸.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된 시리즈로 캐스팅 미정
- <In Between Lives>: 수상하고 비밀스러운 젊은 여성이 자신의 투시력을 베테랑 형사에게 제공해 위험으로부터 로스엔젤레스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그녀는 또한 죽은 자들과 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음. 해리엇 다이어 출연
 - <Untitled Bad Boys Spinoff>: 영화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TV스핀오프. 약물과 여형사인 시드 버넷은 LAPD에서 형사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려고 함. 시드의 파트너는 워킹맘으로 찌든 삶을 사는 낸시 매케나로 시드에 대해 질투가 많은 타입. 완전히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수사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나가는 것이 관전 포인트. 개브리엘 유니언, 제시카 알바 출연
 - <Manifest>: 바다에 추락해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비행기 한 대가 몇 년 뒤 다시 나타났는데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음. 승객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펼쳐지는 이야기로, 비행기가 사라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됨. 조쉬 델러스, 멜리사 록스버그 출연
 - <Suspicion>: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엘프리트 히치콕 스타일’의 스릴러. 대니 골드먼은 백만장자인 이웃의 돈을 빌린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됨. 이웃을 조사하는 명목으로 대니는 FBI의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데, 폭력적인 범죄도시에서 가족과 자신을 지켜내야함. 데렉 루크, 폴라 뉴섬 출연
 - <Untitled Bellevue Hospital Project>: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의 저자이자 내과전문의를인 에릭 맨하이머의 책이 바탕이 된 의학드라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자 교도소 수감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기도 한 벨뷰병원에 새로 부임한 원장의 새로운 환자 중심의 철학이 병원을 바꾸게 되는 이야기. 자넷 몽고메리, 타일러 라빈 출연
 - <The Village>: 연령, 인종, 문화, 생활방식의 많은 차이들이 오히려 삶에 더 많은 연결고리와 도전할 과제를 던져준다는 희망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커뮤니티 드라마. 모란 아티아스, 미카엘라 맥마누스, 프랭키 파이즌 출연

② 코미디

- <Abby’s>: 샌디에이고의 무허가 술집인 애비스는 단골들로만 이뤄진 바로,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규칙인 매우 독특한 커뮤니티. 나탈리 모랄레스 출연
- <Bright Futures>: 20대 중반의 미성숙한 젊은이로부터 안정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유쾌한 이야기. 캐스팅 미정
- <Friends-in-Law>: 브라이언과 제이크는 상극인 성격이지만 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부부가 되자 브라이언과 제이크도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을 찾게 됨. 캐스팅 미정
- <Guess Who Died>: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노먼 리어에게 사회는 이제 조금 쉬라고 말하고, 리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친구인 피터 톨란과 고심하게 됨. 나누는 즐거움과 인생의 각 장에서 만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유머러스하고 영감을 주는 시선으로 그려진 코미디. 홀란드 테일러, 헥터 엘리존도 출연
- <Like Family>: 포스터 케어홈에서 함께 차란 오브라와 아티는 친남매나 다름 없는데, 성인이 되자 둘의 관계가 복잡한관계로 바뀌어감. 브랜든 마이클 스미스 출연
- <So Close>: 대책없이 로맨틱한 라일리와 절친 카일은 각자 결혼을 앞두고 새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됨. 사쉬어 자마타, 션 클리에르 출연
- <Untitled Aseem Batra>: 30분 길이의 코미디쇼.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여자의 시선이 여과없이 보여짐. 사라유 블루, 폴 에텔스타인 출연

3. 파일럿 주문작을 통해 살펴보는 2018 파일럿 시즌 트렌드⁷⁾

○ 여성중심 콘텐츠(Female Oriented Contents)의 부흥

- #metoo, ‘Time’s Up’으로 촉발된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은 여성중심 콘텐츠에 대한 각 네트워크와 스튜디오의 관심이 파일럿 시즌 픽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7)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tv-pilot-season-2018-multicamera-sitcoms-times-up-influencing-early-orders-1080457>

- 페미니즘과 여성 중심의 콘텐츠, 여성 인력이 만드는 콘텐츠들에 대한 픽업이 많았음
- 여성중심 콘텐츠에 대한 산업의 관심은 2017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미 보여진 바 있으며, 2018-19 TV시즌에서도 확연할 것으로 예상됨

○ 멀티카메라 포맷의 부활

- 2018 파일럿 시즌을 보면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인 ‘멀티카메라 포맷’이 부활하고 있음. CBS는 특히 모든 코미디가 멀티카메라 포맷으로 제작됨
- 멀티카메라 촬영방식은, 연기하는 배우의 퍼포먼스를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해 단독 샷을 따로 재촬영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속도가 빠르며 편집에 드는 시간이 적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신변잡기적 이야기의 강세

- 수사물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소시민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가 많음
- 소셜미디어가 보급되고 영향력을 가지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또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에 더해 미국이 직면한 이민자 문제, 소수민족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리부트

- 흥행한 고전 TV시리즈를 그 동안의 시간차를 인정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가는 제작방식인 리부트가 인기임
- <Twin Peaks> <Arrest Development> <X-Files>가 성공적으로 리부트를 마쳤고 이번 시즌에도 <Murphy Brown>이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됨. <L.A. Confidential> 등 여러 차례 영화화된 유명한 이야기도 이번 시즌에 TV시리즈 파일럿으로 픽업됨
- 오리지널 아이디어에 대해 항상 수요가 있는 만큼, 흥행성을 가진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선주문 제작방식의 도입

-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되는 선주문 제작방식이 각 방송사에서 소수 이기는 하지만 몇 편씩 보여짐
-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표작이 있는 총괄제작자들이 크리에이터로 흥행을 보증하거나 드물게 출연하는 배우가 흥행성을 가진 경우가 있음. 이를 테면 CBS의 덕 울프, NBC의 줄리언 펠로우즈, ABC의 네이든 펠리온의 경우 모두 파일럿 테스트 없이 시즌 오더됨

○ “<굿닥터> 같은 따뜻한 이야기 여전히 인기” 8)



[그림7] <The Good Doctor> [출처: ABC]

- 할리우드리포터는 2018년 파일럿 시즌을 정리하며, <굿닥터>와 같이 따뜻한 이야기도 여전히 인기라도 촌평함
- 한국드라마 <굿닥터>를 ABC에서 리메이크해 방영중인데, 이 TV시리즈의 시즌2 제작이 지난 3월 7일 발표⁹⁾되어 2018년 9월에 방송될 예정임
- ABC는 <굿닥터>에 담긴 포용의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시즌2 연장의 이유를 밝힘¹⁰⁾
- <굿닥터> 시즌1의 평균 시청률은 18세~49세 대상으로 1.8%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가장 많이 시청한 TV시리즈로 선정됨¹¹⁾

8)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ve-feed/tv-pilots-2018-complete-guide-1076193>

9) <http://variety.com/2018/tv/news/good-doctor-renewed-season-2-abc-1202720981/>

10) <http://ew.com/tv/2018/03/07/the-good-doctor-renewed-season-2-abc/>

-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작이 시즌2로 이어진 것은 <굿닥터>가 최초임¹²⁾

4. 정리 및 시사점

- 2018-19 파일럿 시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회상의 반영
-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을 TV파일럿 픽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테면 #metoo 운동의 영향력으로 읽어지는 여성 중심 콘텐츠와 여성 인력에 대한 파일럿 픽업이 눈에 띄게 많았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변잡기적 이야기가 TV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았음
- 또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에 반발하여 이민자들의 삶과 이슈를 녹여낸 이야기도 있었음
-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중심에 둔 코미디와 경찰 수사물은 여전히 인기있음
- 또한 한국드라마의 리메이크인 <The Good Doctor>와 같은 보편적인 감성의 이야기도 인기를 증명함. <The Good Doctor>는 2018년 가을에 시즌2를 방영하기로 결정됨
- 스트리밍 사이트의 TV산업 진출로 지상파 네트워크는 기존의 파일럿 제작 방식을 지키면서 케이블 채널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선호하는 선주문 제작방식도 일부 도입함

● 미국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

- 김철민 센터장 : +1-323-935-5001 / cmkim@kocca.kr
- 엘리홍 과장 : +1-323-935-5001 / ehong@kocca.kr
- 권순형 주임 : +1-323-935-5001 / gavin@kocca.kr
- 이민영 주임 : +1-323-935-5001 / irene@kocca.kr

11)

<https://www.broadwayworld.com/bwwtv/article/ABCs-THE-GOOD-DOCTOR-Builds-to-2-Month-High-as-Mondays-Most-Watched-Show-20180123>

12) <http://news.joins.com/article/22426118>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